

개 회 사

**불기2555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
참석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기쁜 날, 오늘은 좋은 날입
니다. 아름다운 연등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날입니다. 무명의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 광명을 밝히기 위해
힘차고 신명나는 행진을 하는 날입니다.**

천 년도 더 지난 먼 옛날부터 마을과

마을, 거리와 거리를 밝혔던 연등회가
오늘날에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실로 우리의 문화는 삶과 함께 어우
러져 힘차게 고통치며 언제나 살아
숨 쉬는 문화입니다. 이제 연등 축제는
천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생동감있는 전통 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의 자랑스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김새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듯이 오늘 우리

손에 드는 연등도 각기 다른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듯이 연등도 그러합니다. 그 다양함이야말로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그 다양함 속에 절묘하게 어우러진 조화로움은 그 자체로 화엄의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전통문화는 박물관의 전시관 속에만 있어야 하는 것처럼 홀대받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숨결이 어려있는 역사는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 숨쉬며 전승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지정한 소중한 문화재와 전통적인 풍습들이 마치 특정 종교의 유물인 것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또 편향된 종교적 시각을 가진 일부 사회 지도층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불교의 책임도 있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올바르게 실천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몸을 낮추니 모두가 존귀합니다.
스스로 성찰하고 과감하게 변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자성과 쇄신 결사입니다.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 5대
분야의 실천은 곧 팔정도이고 사홍서원
입니다.**

**오늘의 연등 행진은 곧 자성과
쇄신을 다짐하는 행진이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의 허물을 돌아보고 새로운
변화 의지를 다지는 발걸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발걸음으로 인해거리의**

**모든 시민들이 우리에게 무한한 신뢰와
격려의 환호를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합니다. 마침내는 모두가 나와 남이
없이 조화로운 화엄의 세계, 하나되는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회향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가장 밝고 아름다운
등불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고
신명나는 몸짓으로 나와 남, 우리와
이웃, 사회를 밝게 비추는 광명의
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읍시다.**

**오늘 연등 행진에 함께 하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이 대한
민국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어
온 세계가 하나되는 축제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다 함께 기원합니다.**

불기 2555년 5월 7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